제3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글은 당협회가 87년도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3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956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작2편 가작5편 입선작10편 장려상20편등 총38편이 당선되어 이번호에 가작 5편을 게재하였으며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소가 된 선생님

가작

성남수진국민학교
6～1 조 문 주

우리 선생님의 별명은 "소"입니다. 소처럼 부지런 하기도 하지만"소"라는 별명이 생긴것은 다른 이유에서 입니다. 학기초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이 우유를 드시는데 우리들 처럼 그냥 막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우유를 씹어 먹는 것이었 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깔깔거리며 웃었읍니다.

"에이 선생님, 우유를 누가 씹어 먹어요. 꼭 소같아요."

윤경이가 한마디 했읍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네.

그래요. 꼭 소같아요. 소선생님" 우리는 큰 소리로 합창을 하며 놀렸읍니다. 우리의 극성에도 아랑곳 없이 천천히 우유를 다 드시고 나신 선생님은 "얘들아 이 소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 보렴."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두귀를 쫑끗 세우고 선생님을 바라 보았읍니다.

"우유는 먹을때 선생님 처럼 우유를 씹어먹어야 이빨과 우리몸에 큰 도움이 된단다. 이제 알겠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읍니다. 아이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읍니다. 나는 "야, 우리모두 이제부터 우유를 선생님 처럼 씹어먹자."

"그럼 우리반은 소반이 되겠네!" 윤경이의 한마디에 우리모두 웃었읍니다.

나는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다른 선생님 보다 우리 소선생님이 뭐든지 잘하시는 것은 우유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우리선생님은 얼굴도 예쁘시고 건강하시고 노래도 잘 하십니다. 그건 모두 그 씹어먹는 우유탓 인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저희 선생님은 뭐든지 잘 하시 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께서는 우유를 드실때 씹어서 드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선생님 이라고 불러요."
"너도 선생님 처럼 먹어보렴 선생님 처럼 무엇이든지 잘하게 될꺼야."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런일이 있은후 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먹을때 선생님 처럼 씹어먹었읍니다. 어느날 우유를 먹는 언니를 보고 "언니. 우유는 그냥 마시는게 아니야 나 먹는 것을 봐. 소처럼 씹어먹잖아." "니 모습이 꼭 한달 굼주린 소같다 소같애." 하며 언니는 막 웃었읍니다.

"언니도 참 웃지만 말고 내말 명심해 두라고." 나는 언니에게 이렇게 소리치고서 남은 우유를 마셔버렸읍니다.
내 등치는 크지 않치만 남보다 건강하고 뼈가 튼튼합니다. 왜냐면 우유를 씹어 먹어서 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키좀커라""살좀쪄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겉에비해 속은 건강하답니다. 저희 외할머니 께서는 저만보면 언제 키가클려고 그러냐며 소리를 늘어 놓으십니다. 그럴대 마다 나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도 저는 건강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읍니다. 언젠가 제가 심하게 아팠을때 우유를 먹고서 낳은적이 있었읍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아파서 병원 신세지고 주사맞는것이 싫으면 항상 우유를 씹어먹으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이렇게 작은 등치에도 건강할 수 있게만든 우유가 고마웠읍니다. 선생님에게도 감사했읍니다. 소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 아까운 우유를 그냥 낭비 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 어린이들이 우유를 씹어먹는다면 자라서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지 않을까…

덩치도 아주크고 지혜도 가득 담긴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소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하얀우정

가작

부천원미국민학교
5～7 정 미 혜

휴. 덥다. 선생님 우유 빨리 주세요. 체육시간에 공놀이로 땀을 흠뻑낸 아이들은 헉헉대며 선생님께서 얼른 우유를 나눠 주셨으면 하며 선생님을 조른다.

올해 4학년인 한이가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한이가 입학하기도 전인 아주오래 전 부터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 달분으로 얼마간의 돈만 내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우유를 마실 수가 있다.

그러나 한이는 입학해서 한 번도 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다. 엄마께서는 매달" 한이야, 우유을 마시면 아주 좋단다. 자. 얼른 이걸로 우유신청해서 마셔라."하시며 번번이 돈을 쥐어주시지만 그 때마다 한이는. " 싫어요. 제가 뭐 송아지인가요? 소 젖을 먹게…"하면서 그냥 나와 버리곤 했던 것이다.

한이는 우유를 꼴깍꼴깍 소리내며 잘도 마셔대는 아이들을 맨 앞자리에서 쳐다보며 "저게 뭐 그리 맛있을까? 그냥 하얀 물가지고…'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 때 한이의 눈에 우유를 타지않은 채 그냥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는 승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러자 한이는 반가왔다. '저 애도 나와 마찬가지로 우유를 마시지 않는구나! 나와 똑같이 우유를 싫어하나 보지? 그런데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한이는 여전히 책상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 승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두어번 갸웃거렸다.

한이가. 승미의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그동안 한이는 우유급식시간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유를 마시지 않는 단 하나의 친구인 승미를 바라보며 승미에 관해, 승미가 왜 이 시간마다 슬프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가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 봤었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날 새벽에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다가 그 산위의 다 쓰러져가는 보기도 싫은 이상한 집에서 삐그덕 문을 열고 나오는 승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한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옷이 좀 허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녔던 그 상냥한 승미의 집이 저렇게 벽이 다 무너져가는 산 위의 집이라니!

그 때 승미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입을 딱 벌린채 자신을 멍청히 쳐다보고 있는 한이를 바라다보며 싱긋웃었다.

처음에 승미도 한이를 보고 자기집이 가난한데 대하여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한이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아 같이 웃을수 있었다. 그리고 한이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 한이 아니야? 이른아침에 웬일이야? 아. 저 산에 운동하러 왔나보지?" 하며다시 한 번 생긋 웃었다.

한이는 자신의 그 부끄러울 것 같은집을 친구에게 보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승미가 이상했다. 그리고 또다시 승미네 집을 쳐다보았다.

"아. 저 집! 저거 우리집이야. 지금 엄마와 내 동생과 내가 사는 집. 아버지는 내개 네 살때 어디 먼데 가셨대 아무도 못 가본 곳… 그런데 운동 안할거야? 왜 여기이러고 있지? 나랑 같이가."

한이는 승미를 따라 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아까 제 집을 가리키던 승미의 그 큰 눈 속에 언뜻 비쳤던 맑은 이슬방울을 생각했다.

"한이야. 무슨 생각하니? 자 다 왔어."

한이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모두 불을 깜박이며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것 같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상쾌했다.

"한이야, 아까 우리집보고 깜짝 놀랐지? 그래 그게 바로 나의 편안한 보금자리란다. 처음엔 나는 그런집. 무척 싫었어. 다른사람들한테 보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아침엔 집에서 일찍나오고 학교 끝난 후에도 느릿느릿 집에 왔단다. 혹. 우리집에 오겠다는 아이가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아무도 못 오게 했지. 우리집을 본 친구는 아마 네가 제일 처음일거야.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왜냐하면 비록 아버지는 안계시지만 우리 세식구 편히 쉬게 해주는 고마운 휴식처니까…… 이런 말을마치고 승미는 방그레 웃었다. 그 날따라 승미가 더욱 예뻐보이고 대견했다. 한 편으로는 좀 가엾었다.

"선생님, 우유 주세요."

한이는 우유를 받아들고 꼴깍꼴깍 맛있게 마셨다. 엄마께 두 사람분의 우유값을 타서 승미도 함께 마시는 우유맛은 정말 좋았다. 승미가 우유를 마시다 말고 한이를 쳐다보고는 들릴락말락 속삭였다. "한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네 자리도 세번째 줄이 되겠구나! 키가 많이 자란것 같아."

한이는 이제 우유마시는 시간에 책상을 쳐다보는 대신 함께 우유를 마시게된 승미를 보고 말했다.

"이쑤시개같던 너도 많이 튼튼해졌어." 한이와 승미는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창 밖에는 여름이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젖소

가작

서울둔촌국민학교
5~4 신 수 정

작년 여름방학때는 대구 근교에 있는 외할아버지 목장에 갔었다.

그 넓은 목초지에는 한가롭게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울타리에 심어 논 과일 나무에는 풋과일이 싱그럽게 달려있었다.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목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뒤뚱거리시며 달려오셨다.

"내 새끼들 오는구나, 아이구 이 놈 들 그동안 무척 컸구나."

동생과 나를 양팔에 안으시는 할아버지에게선 풀냄새와 쇠똥냄새가 났다.

"아이구 똥 냄새!"

동생은 코를 움켜쥐고 할아버지 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할아버지께선 그런 우리들이 밉지 않으신 모양으로 크게 소리내어 웃으셨다. 축사와 약간 떨어진 살림집에는 목장관리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곳에서 쉬고 있을 때 모자를 벗으시며 들어서는 할아버지께서는 지난 해 보다도더 늙어 보이셨다.

목장일이 고단 하신 것 같았다.

"소값이 어서 좋아져야 애들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할텐데……."

할아버지와 관리인 아저씨가 주고 받는 말씀 속에는 소값 파동으로 목장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거기에다 우유소비가 공급을 따르지 못해서 우유를 버리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할아버지 그 비싼 우유를 왜 버려요. 우리들이 더 많이 먹을께요."

"아암 그래야지. 우유가 얼마나 좋은 식품이라고, 편식하는 아이들도 우유는 좋아하지, 우유를 많이 먹으면 몸도 튼튼해지고 할아버지 같은 낙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는 마음 속으로 내 친구들에게도 우유를 많이 먹도록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축사로 나온 동생과 나는 커다란 젖을 내 놓고도 부끄럽지 않은 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젖소들을 놀려주기도 했다.

"할아버지, 나 저 젖소 등에 태워주셔요."

개구장이 동생은 또 장난질이 생각났는지 할아버지를 졸랐다.

"저 젖소는 내 상전이란다. 감히 상전 등에 타게 할 수는 없으니 여기 내 등에 타라."

젖소를 상전이라고 농담까지 하시는 할아버지는 등을 구부려보이면서 동생더러 타라고 하셨다. "싫어요. 나는 저 소 등에 타고 싶단 말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 듣지 못한 듯 동생은 졸랐지만 우리의 음석을다 들어 주시면서도 이것만은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만큼 할아버지는 젖소를 아끼고 계셨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유만

대하면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 올랐다. 우유 소비가 잘 되어 할아버지 주름살도 펴드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도 좋아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 "꿀꺽. 꿀꺽." 오늘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유를 마신다.

나의 건강과 우유

가작

부산사직국민학교
6～2 천 수 년

우유 왔읍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우유가 배달된다. 아침을 짓기 위해 6시쯤 일어나시는 어머니는 가족들이 깰까봐 항상 현관문을 미리 따 놓으신다. 국민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는 우유와 야쿠르트를 놓고간다. 어머니를 도우는 그 학생이 아주기특하게 생각된다. 나는 저만한 나이에 배달 된 우유도 먹기 싫어 어머니 속을 태운 것을 생각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4학년 때의 일이다. 신체 검사 때 몸무게도 달아보니 19kg이었다. 친구들도 그랬지만 선생님께서도 뜻 밖이라는듯 "밥 많이 먹고 살 좀 쪄야겠다."고 핀잔 아닌 걱장을 해 주셨다. 남동생은 3학년 이었는데 36kg이나 돼 누나인 나보다 무려 17kg이나 더 많았다. 둘이 티격 태격 싸우면 꼭 내가 맞고먼저 울었다.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하시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시며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각자 2개씩, 그리고 집에서는 4개씩을 받기 시작했다. 도시락도 먹고 나서는 꼭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자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걱정이 됐다. 처음에는 콜라나 환타처럼 맛도 없고 별로 내키지 않아 눈치만 보며 먹돌이 동생에게 슬쩍 내밀면 단숨에 물 마시듯 꿀꺽꿀꺽 마셔버리는 동생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런 행동을 눈치 챈 어머니께서 "너의 건강은 너 자신이 지켜야지. 자기 몫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된다." 고 하시면서 몹시 꾸짖었다. 그런일이 있은 후 텔레비젼에서 미스코리아선발 대회가 있었다. 나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연습장과 연필을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채점을 하며 열심히 봤다. 사회자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뭐 과일을 많이 먹는다느니, 야채를 많이 먹는다느니 나름대로 이야기가 많았다. 나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막혀오며 큰 걱정 거리가 생각났다. 피부가 희지 않고 좀 가무잡잡하다. (어머니께서 검다고 안 하시고 꼭 가무잡잡하다고 하신다.) 검은 피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피부가 희게 될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부가 희어지는 비결이 꼭 한가지 있다고 하셨다."우유를 꾸준하게 많이 먹으면 피부가 우유빛처럼 뽀오얗게 된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물 먹고 싶을 때마다 우유를 마시게 됐다. 나의 몫 4개가 모자라서 1000ml를 사서 계속 마셔 댔다. 음료수를 먹지 않으니까 밥 맛도 있어 밥도 많이 먹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나니까 얼굴은 별로 희어진 것 같지않은데 몸무게도 36kg, 키도 우리 반에서 큰 편에든다. 4학년 때 보다 17kg이나 늘어 아주 건강해 졌다. 이제 6학년이니까 짧은 바지 입기가 좀 쑥스럽지만, 선생님께서 중학교에 가면 입을기회가

없으니까 실컨 입으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어 튼튼해진 다리를 한껏 뽐내고 다닌다. 몸은 건강해졌는데 얼굴은 희어지지 않아서 어머니께 이상하다고 다시 여쭈어 봤더니 이제는 우유도 계속 먹으면서 비누로 거품을 내어 세수를 깨끗이 하면 희어 질거라고 해서 요즈음 계속 씻고 있다. 비누 색깔도 우유빛 처럼 흰 색깔의 비누로 부지런히 씻고 있지만 내 친구 원선이 처럼 그렇게 뽀얗고 예쁜 피부를 갖기 힘들것 같다. 아마 태어 날 때 부터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 이 만큼 건강해 졌고, 하이얀 비누로 깨끗이 몸과 마음을 닦아 아름다운 이 나라의 여성으로 커 가리라 다짐 해 본다.

정든 우유

가작

서울동자국민학교
4～3 신 복 교

엄마가 우유 배달 할때는 냉장고에 우유가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실수있고 많이 마셔서 좋았다.

내가 일학년이 될때부터 작년 봄까지는 우리 집에 우유가 많이 있는것이 자랑스러웠고, 내친구가 오면 친구들도 우유를 주었는데, 엄마가 우유배달을 그만두고, 아빠가 차린 공장에 나가시는 뒤로는, 학교 우유와 저녁에 반잔씩만 마시니까 지난날 우유를 많이 마시던 때가 그리웠다. 얼마전에는 엄마한테, "엄마, 그전에 지하실방에 살때는 우유를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우유를 조금 마셔요?" 하니까 2학년 동생 윤재가 "엄마 그전에 처럼 또 우유배달 해요. 그러면 우리 냉장고에 우유 많이 있잖아. "하여서 아빠와 엄마가 많이 웃으셨다. 우리 선생님도 우유값 낼때마다, "너희들만 할때가 참 중요하단다. 식사도 잘 하고 우유도 물마시듯이 자주 마셔서 건강해야 어른이 되어도 튼튼하단다."하셨다.

우리 반은 우유를 두개씩 마시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우유 대장반,이다. 우선 선생님과 반장 부반장이 항상 두개씩 마시고 분단장들도 두개씩 마시니까 다른 애들도 덩달아 두개씩 마신다.

우리 선생님 별명은 '우유 선생님,이다. 또 지은이는 "선생님은 이다음에 우유공장을 차리실 모양이야." 하여서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나는 선생님이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셔도 우유가 정이 들었다. 엄마가 우유 배달하던 추운 겨울이었다.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시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은 그 다음날 엄마는 간신히 일어나셔서, 이모한테 전화를 하고 빨리 오라고 하였다.

이모가 하루 쉬라고 하여도 엄마는 "신선한 우유를 빨리 배달해야 된다."며 이모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고 오셨다. 그날 이모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으로 나는 '엄마가 윤자와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걸 알았다.

그뒤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마실때 마다, '엄마, 우유 고맙게 마십니다,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니까, 우유가 한결 더 맛있는듯 하였다.

엄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윤자와 나에게 조그만 우유 한개로 반잔씩 주신다. 그리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마셔야 좋단다,"하셨다.

저녁마다 조금씩 마시는 우유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따뜻한 정성을 나는 잊을수가 없다. 정든 우유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랑과 고생이 담겨있는 우유라고 생각된다.